

#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진경

승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otion Dysregulation

Goh, Jinkyung

Department of Counselinf Psychology, Soosil Cybe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치심 경험척도, 공격성 질문지, 정서조절곤란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87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결과, 수치심은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중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의 비수용은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치심으로 인한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응적 정서조절이 요구됨을 밝혔다. 이에 정서조절능력 향상 방안 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수치심, 공격성, 정서조절곤란, 충동조절곤란, 정서의 비수용,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aggression. All data was measured on Experience of Shame Scale,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Total 287 responses were analy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hame affected not only directly aggression but also influenced through emotion dysregulation. Impuse control difficulties and nonacceptances of emotional responses showed the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of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in dealing with aggression elicited by shame.

**Key Words** : Shame, Aggression, Emotion Dysregulation, Impulse control, Nonacceptance, Mediating

### 1. 서론

자의식적 정서는 발달적으로 기본적인 정서들(basic emotions) 이후에 형성되는 특정한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정서로[1],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판단 등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2].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 중 하나인 수치심은 내재화된 타인 및 사회적 가치가 그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경험된다는 것이 특징이다[3]. 수치심은 자신의 총체적인 자기(Self)를 부정적 절하고 부족한 존재로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정서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4].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유발되는 정서인 수치심은 과거의 행동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야기되는 죄책감과는 구분된다. 죄책감은 행위자체에 대한 감정으로 이에 대한 반성 및

\*Corresponding Author : Goh, Jinkyung(gjksyr@mail.kcu.ac)

Received August 17,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수정하려는 동기를 발생시키는 적응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수치심은 보다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야기하며, 자신 및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 및 고통스러운 상태를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야기한다[1].

자기(self)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절하를 자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수치심은 개인적 신분의 추락이나 타인의 거부를 지각하는 사회적 사건들에 의해 유발되며, 수치심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평가절하(self-devaluation)의 지각은 자기 가치와 자기 효용성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이런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대방에 대한 적의적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고, 자아에 대한 좌절감이 공격성으로 이어져,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의 외현화를 통해 수치심을 느꼈을 때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한다[5]. 이는 힘과 지배의 신호로 여기는 공격성을 통해 사회적 위계를 높이고 수치심으로 유발된 손상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나 폭력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심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6]. 또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회피와 억제, 투사와 수동공격, 행동화와 같은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미성숙한 방어의 기제 사용의 근거에는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직,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7].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나[5-8], 국내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수치심과 같은 부적 정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치심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소수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수치심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5-8]. 그러나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수치심은 외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이 반드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좀 더 명료화하

기 위해서는 두 변인 사이에 내재하는 기제에 대한 부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수치심이 적절한 정도로 경험되는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도덕발달에 적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건강하고 성공적인 기능이 어려워지는데, 조절하기 어려운 정서중의 하나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정서조절과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9,10]. 수치심은 정서적 억압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내적으로는 심리적 불편감을, 외적으로는 공격성과 같은 병리적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11,12].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할 경우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방어하게 되어 정서조절의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정서조절은 부정적 정서 유발과정에 관여하여 공격성의 감소 또는 증가를 예측하는 변인이며, 다양한 정서적 상황 속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요인으로 여겨졌다[13]. 이에 수치심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는 적대감과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편으로 수치심과 공격성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고, 수치심과 공격성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단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수치심과 공격성 간에 연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14].

정서조절은 정서를 느끼는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정서변화를 위해 상황을 조절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다[15].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행동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정서조절에 곤란이 적은 경우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행동문제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런 결과는 부정적 정서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 즉, 정서조절곤란은 수치심으로 인한 공격성 증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와 수치심이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수치심이 같은 부적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공격성을 다루는데 정서조절의 기능을 파악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

의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95명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8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50명(17.4%), 여성 237명(82.6%)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33명(11.5%), 30대 67명(23.3%), 40대 124명(43.2%), 50대 57명(19.9%), 60대 6명(2.1%)이었다. 최종학력 분포는 고졸 95명(33.1%), 전문대졸 91명(31.7%), 대졸 68명(23.7%), 대학원졸 33명(11.5%)이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수치심 경험척도(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Andrew 등이 개발한 수치심 경험척도를 신재은 등이 변안한 수치심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18]. 수치심 경험 척도는 '성격적 수치심'(9문항), '신체적 수치심'(3문항), '실패경험 수치심'(3문항), '행동적 수치심'(3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형의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2=약간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심하게 그렇다)로 측정한다. 내적 일치도는 .8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수치심 .89, 신체적 수치심 .85, 실패경험 수치심 .79, 행동적 수치심 .82로 나타났다.

#### 2.2.2 공격성 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uss와 Perry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이 변안한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19]. 신체적 공격행동 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서수균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공격성 .65, 언어적 공격행동 .78, 분노감 .69, 적대감 .74로 나타났다.

### 2.2.3 정서조절곤란척도(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가 개발하고 조용래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20]. K-DERS는 6개의 하위척도인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8문항), 정서의 비수용성(7문항), 정서적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6문항),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4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조용래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83, 정서의 비수용성 .87, 정서적 명료성 부족 .7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8, .86, .88, .77, .79, .86이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였다[21].

## 4. 연구결과

###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왜도 및 첨도 산출 결과, 왜도는 모두 2 미만, 첨도는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수통계를 시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	Range	Aver.	SD	Skewness	Kurtosis
Shame	18-72	33.31	8.21	0.76	1.09
Emotion Dys.	33-165	64.82	17.94	1.13	1.67
Impulsivity	5-25	8.28	3.43	1.50	2.48
Awareness	7-35	16.92	5.30	0.52	-0.17
Nonaccept	8-40	14.85	5.66	1.14	1.33
Clarity	3-15	4.76	1.88	1.35	2.18
Strategies	6-30	11.35	3.96	1.16	1.31
Goals	4-20	8.67	3.49	0.93	0.53
Aggression	30-150	50.88	10.00	0.66	0.35

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Table 2 참고).

Table 2. Correlations Among Shame, Emotion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Var.	1	2	3	4	5	6	7	8	9
1	1								
2	.63**	1							
3	.55**	.80**	1						
4	.26**	.27**	.60**	1					
5	.52**	.81**	.59**	.25**	1				
6	.57**	.73**	.59**	.46**	.52**	1			
7	.50**	.82**	.59**	.35**	.61**	.52**	1		
8	.55**	.81**	.74**	.25**	.61**	.52**	.70**	1	
9	.44**	.47**	.58**	.15**	.31**	.41**	.37**	.47**	1

Variables: 1.Shame 2.Emotion Dysregulation 3.Impulsivity 4.Awareness 5.Nonacceptance 6.Clarity 7.Strategies 8.Goals 9.Agression  
\* p<.05, \*\* p<.01

4.3 수치심,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간의 관계

수치심,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은 4변 모형을 적용하였고,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은 정서조절곤란(B=1.367, p<.001)과 공격성(B=0.312, p<.001)에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치며,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0, p<.001). 즉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고, 수치심이나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면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아래 Table 3 참고).

Table 3. Significance Test of Path Coefficient

Model	Path	B	S.E.	β	t
1	Shame → Emotion Dysregulation	1.367	.101	.626	13.543**
	Shame → Aggression	0.312	.080	.256	3.904**
2	Emotion Dysregulation → Aggression	0.170	.037	.306	4.664**

\*\*\* p<.001 Model 1. F=183.401(p<.001), R<sup>2</sup>=.392, adj R<sup>2</sup>=.389  
Model 2. F=49.115(p<.001), R<sup>2</sup>=.257, adj R<sup>2</sup>=.252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효과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하였다(아래 Table 4 참고).

그 결과 직접효과는 0.312로 나타났는데,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0.233으로 나타났는데,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심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정서조절곤란은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효과는 0.545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심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otal, Direct, and Mediated Effect of Shame on Aggression

Effect Type	Path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Shame → Aggression	0.545	.065	0.418	0.672
Direct Effect	Shame → Aggression	0.312	.080	0.155	0.469
Mediated Effect	Shame → Emotion Dysregulation → Aggression	0.233	.057	0.127	0.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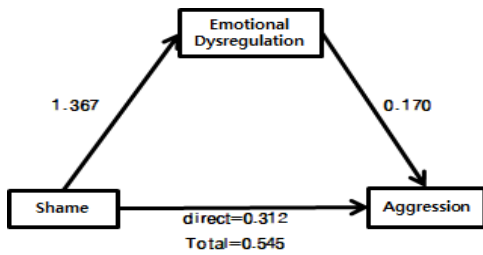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on model between shame, emotional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4.4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검증

앞서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아래 Table 5 참고).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Subfactors of Emotion Dysregulation

M.	Path	B	S.E.	$\beta$	t	p
1	Shame→ Impulsivity	0.229	.021	.548	11.049***	.000
	Shame→ Awareness	0.167	.037	.258	4.513***	.000
3	Shame→ Nonaccept	0.361	.035	.523	10.360***	.000
4	Shame→ Clarity	0.131	.011	.571	11.747***	.000
5	Shame→ Strategies	0.243	.025	.504	9.838***	.000
6	Shame→ Goals	0.238	.021	.559	11.370***	.000
7	Impulsivity→ Aggression	1.360	.225	.467	6.052***	.000
	Awareness→ Aggression	-0.103	.102	-.054	-1.002	.317
	Nonaccept→ Aggression	-0.268	.118	-.152	-2.280*	.023
	Clarity→ Aggression	0.414	.366	.078	1.130	.260
	Strategies→ Aggression	0.037	.182	.015	0.204	.838
	Goals→ Aggression	0.216	.235	.075	0.919	.359
	Shame→ Aggression	0.233	.077	.191	3.005**	.003

\* p<.05, \*\* p<.01, \*\*\* p<.001  
 Model1. F=122.090(p<.001), R<sup>2</sup>=.300, adj R<sup>2</sup>=.297  
 Model2. F=20.369(p<.001), R<sup>2</sup>=.067, adj R<sup>2</sup>=.063  
 Model3. F=107.327(p<.001), R<sup>2</sup>=.274, adj R<sup>2</sup>=.271  
 Model4. F=137.999(p<.001), R<sup>2</sup>=.326, adj R<sup>2</sup>=.324  
 Model5. F=96.794(p<.001), R<sup>2</sup>=.254, adj R<sup>2</sup>=.251  
 Model6. F=129.266(p<.001), R<sup>2</sup>=.312, adj R<sup>2</sup>=.310  
 Model7. F=23.689(p<.001), R<sup>2</sup>=.373, adj R<sup>2</sup>=.357

수치심은 모든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중에서는 충동통제곤란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1.360, p<.001)을, 비수용성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68, p<.05). 또한 수치심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33, p<.01).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이 충동통제곤란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간접효과 크기가 0.311로 추정되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치심이 비수용성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간접효과 크기가 -0.097로 추정되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하위요인은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여 유의미 하지 않았다(아래 Table 6 참고).

Table 6. Total, Direct and Mediated Effect of Shame on Aggression through Subfactors of Emotion Dysregulation

Effect Type	Path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Shame→ Aggression	0.545	.065	0.418	0.672	
Direct Effect	Shame→ Aggression	0.233	.078	0.080	0.386	
Mediated Effect	Mediation through Impulsivity	0.311	.066	0.190	0.450	
	Mediation through Awareness	-0.017	.018	-0.055	0.015	
	Mediation through Nonacceptance	-0.097	.052	-0.214	-0.007	
	Mediation through Clarity	0.054	.048	-0.039	0.152	
	Mediation through Strategie	0.009	.046	-0.074	0.108	
	Mediation through Goals	0.051	.054	-0.053	0.159	
	Total Mediated Effect		0.312	.059	0.200	0.431

결과적으로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충동통제곤란은 정적으로, 비수용성은 부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수치심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성은 부분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간접효과의 전체 크기는 0.312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충동통제곤란만의 매개효과의 추정치인 0.311과 거의 동일하다. 즉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충동통제곤란은 정서조절곤란 요인 중 가장 큰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와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과 공격성,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은 각각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 경험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9, 22]. 또한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수치심을 경험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3].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도 정적 상관이 있는데, 이는 정서조절 곤란을 겪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으로 다루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의 지속성과 강도가 높아져 갈등상황에서 공격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24].

둘째, 수치심,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활용한 결과, 수치심은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에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치며,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이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25,26]. 수치심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낄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압하거나 방어하게 되어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은 정서조절의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정서조절곤란은 공격행동 유발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공격성 표출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수치심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깊은 내면의 정서이면서 방어적 대처유형이 다양한 수치심을 접근하는데 있어 기능적인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셋째,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중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나머지 하위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이 매개모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요인임을 밝혔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7]. 충동통제곤란은 수치심과 공격성을 정적으로, 정서의 비수용은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수치심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성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수치심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고,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 반면에 부적 정서에 대한 2차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자신의 정서적 불편감으로 인한 반응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성인 정서의 비수용은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비수용은 정서적 경험을 수용하지 않고 정서적 반응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으로 자신의 정서적 불편감을 공격적 수단을 통해 대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13,26,28]. 매개효과의 전체 크기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서의 비수용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정서의 비수용이 공격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29,30]. 몇몇 선행연구는 수치심은 정서조절의 곤란을 겪을 경우 공격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31,32]. 이는 정서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의 자기처벌

과 억제기능은 감소하게 되는데 비해, 정서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심의 자기처벌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지적 전환의 기회를 놓쳐, 수치심의 자기처벌 기능이 강화되어 공격성이 억제된다는 것이다[15,3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요인의 매개효과가 다름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수치심과 공격성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하위요인을 구체화함으로써 깊은 내면의 정서이면서 방어적 대처유형이 다양한 수치심을 접근하는데 있어 정서조절을 활용한 심리적 지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수치심과 공격성과의 관계가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된다 점은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등을 적용하여[34], 수치심과 같은 부적 정서의 부적응적 산물인 공격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을 단일차원으로 검증하였으나, 최근 두 개념 모두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차원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효과는 인과관계를 가정하므로 수치심이 정서조절곤란에 선행하고 그 결과 공격성의 위험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M. Lewis, S. M. Alessandri & M. W. Sullivan.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3), 630-638.
- [2] M. Lewis. (2003). The Role of the Self in Shame. *Social Research*, 70(4), 1181-1204.
- [3] J. P. Tangney, P. E. Wagner, D. Hill-Barlow, D. E. Marschall & R. Gramzow. (1996). Relation to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797-809.  
DOI: 10.1037/0022-3514.70.40.797.
- [4] J. P. Tangney, P. E. Wagner, C. Fletcher & R. Gramzow.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DOI: 10.1037/0022-3514.70.40.797.
- [5] S. Y. Han. (2007). Moral Emotion and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ce-Focusing on Guilt, Shame and Empath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7), 17-33.
- [6] J. E. Cha, J. Y. Lee, S. H. Hwang.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Fear of Abandon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Comparison of Boy and Girl Students Modell. *Journal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7(2), 3-15.
- [7] J. Elison, C. Garofalo, & P. Velotti. (2006). Shame and aggressi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 447-453.
- [8] S. Y. Han. (2010).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1), 125-143.
- [9] N. Garnefski, V. Kraaij & P. Spinhoven.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0), 1311-1327.
- [10] W. W. van Dijk, L. F. van Dillen, M. Rotteveel & E. C. Seip. (2017). Looking into the crystal ball of our emotional lives: emotion regulation and the overestimation of future guilt and shame. *Cognition and Emotion*, 31(3), 616-624.
- [11] J. Elison, S. Pulos & R. Lemon. (2006). Shame-focused coping: An empirical study of the compass of sham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 161-168.
- [12] P. Velotti, J. Elison & C. Garofalo. (2014). Shame and aggression: Different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 454-461.
- [13] T. Roberton, M. Daffern & R. S. Bucks. (2012).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72-82.
- [14] S. Roos and C. Salmivalli. (2015).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Moderate the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on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61(1), 30-50.
- [15] N. Eisenberg.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 665-697.
- [16] N. Eisenberg, R. A. Fabes, B. Murphy, P. Maszk, M. Smith & M. Karbon.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5), 1360-1384.
- [17] E. Han .(2005).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85-100.
- [18] J. Shin, S. Kim, M. Y. Jeon, D. H. Park, & J. H. Ha. (2015).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K-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1), 23-39.
- [19] S. G Seo & S. M. Kwon. (2002).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th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20] Y. Cho. (2007). Assessing Emotion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21]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22] M. K. Underwood.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23] L. D. Crocker, M. Haller, S. Norman, A. C. Angkaw. (2016). Shames versus trauma-related guilt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Symptoms and aggression among returning Veteran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8*(4), 520-527.
- [24] M. Peled & M. M. Moretti .(2007).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in adolescence: Fueling of fury and deeping of despai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66-75.
- [25] C. Garofalo & P. Velotti. (2017). Negative emotionality and aggression in violent offenders: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1*, 9-16.
- [26] A. M. Cohn, M. Jakupcak, L. A. Seibert, T. B. Hildebrandt & A. Zeichner. (2010).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men's restrictive emotionality and use of physical aggressio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1*(1), 52-64.
- [27] P. Velotti, C. Garofalo, F. Bottazzi & V. Carett. (2017). Faces of Shame: Implications for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51*(2), 171-184.
- [28] R. Chambers, E. Gullone & N. B. Allen. (2009). Mindful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560-572.
- [29] J. M. Sundermann, A. T. Chu & A. P. Deprince. (2013). Cumulative Violence Exposure, Emotional Nonacceptance, and Mental Health Symptoms in a Community Sample of Women.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4*, 69-83, DOI: 10.1080/15299732.2012.710186.
- [30] M. D. Mckenzie & R. B. Casselman. (2017). Perceived Father Rejection and Young Adult Aggression: Examining Mediation Componen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8*(8), 1089-1109. DOI: 10.1177/0192513X15610615.
- [31] G. Kochanska, R. A. Barry, N. B. Jimenez, A. L. Hollatz & J. Woodard. (2009). Guilt and effortful control: Two mechanisms that prevent disruptive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22-333. DOI:10.1037/a0015471
- [32] L. Seibokaite, A. Endriulatiene, M. J. M. Sullman, R. Marksaityte & K. Zardeckaite-Matulaitiene. (2017).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risky driving among Lithuanian drivers. *Traffic Injury Prevention, 18*(7), 688-693. DOI: 10.1080/15389588.2017.1315109.
- [33] C. N. DeWall, R. F. Baumeister, T. F. Stklman & M. T. Gailliot. (2007). Violence restrained: Effects of self-regulation and its depletion on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62-76. DOI:10.1016/j.jesp.2005.12.005
- [34] M. A. Jeon, J. M. Kim. (2011). 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Emotion Regulation in a patient group.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113-135.

고진경(Goh, Jin Kyung)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영문학사)
- 1987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1994년 9월 : 독일뮌스터대학교 심리학과(Psy.-Dip.)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숭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병리, 인지행동치료, 임상심리, 심리평가
- E-Mail : gjksyr@mail.kcu.ac